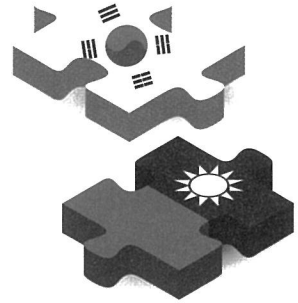




# 대만의 ICT 산업은 어디로? 어떻게?

“글로벌 ICT 산업체계에서 대만은 반도체, 부품, 제조역량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디바이스, 인프라, 콘텐츠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이 연구개발, 표준화, 산업혁신 등에서 협력한다면 서로가 원-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유사한 국민성, 근현대의 역사적 경험 등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양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현우 단국대학교 국제학부 모바일시스템 전공 부교수

대만의 ICT 산업에는 명암이 섞여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Foundry 업체인 TSMC, 애플에 아이폰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위탁 생산 업체인 Foxconn 등이 밝음을 대표한다면, 한때 고급 스마트폰을 선도하던 HTC, 보급형 PC를 주도하던 ACER, Siemens의 휴대폰 부문을 인수하면서 세계 제패의 꿈을 꾸던 BenQ 등은 거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어서 어둠을 대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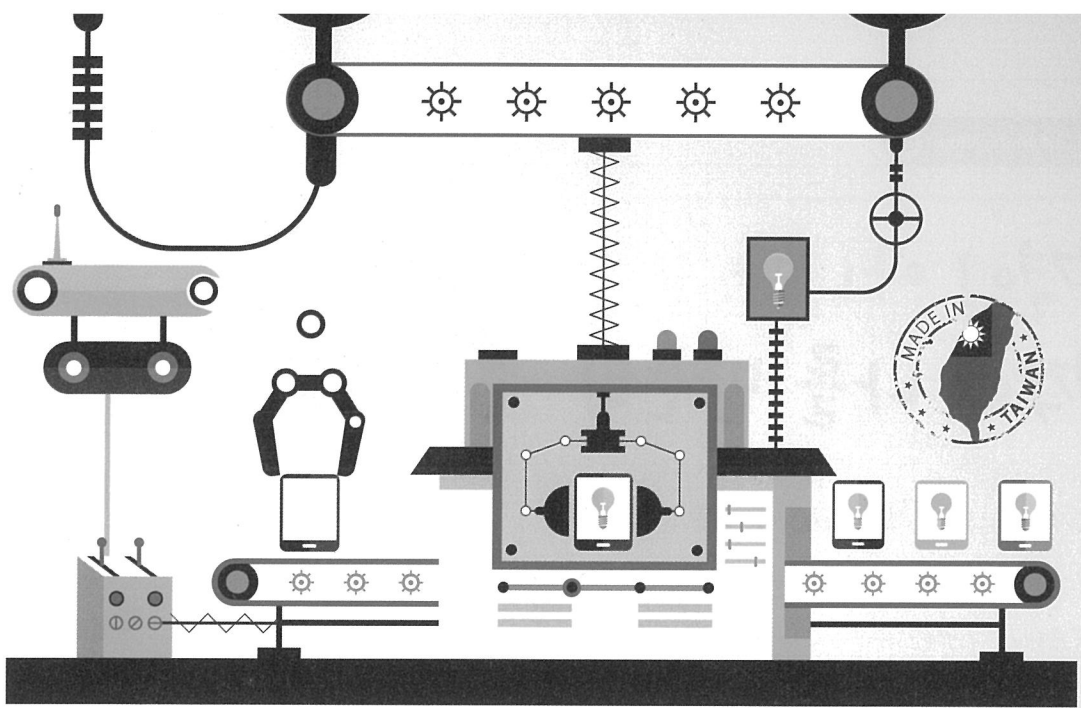
과거 탄탄한 중소기업 체계를 바탕으로 외풍에 비교적 잘 적응하면서 전 세계 ICT 부품산업을 좌지우지하던 대만의 ICT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금년 9월 미국 피닉스에서 열린 3GPP TSG RAN 기술총회에서 MediaTek과 ITRI를 중심으로 한 대만 대표단은 자국 표준화 기구인 TAICS(Taiw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의 설립을 알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동안 대만 업계가 ICT 산업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면 자국 표준화 기구의 설립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아마도 작년에 자국 표준화 기구인 TSDSI(Telecommunication Standard Development Society of India)를 설립하고 일사천리로 금년부터 3GPP 공식 SDO(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로 참여하게 된 인도의 사례로부터 자극을 받은 듯하다.

TAICS는 사무총장으로 국책연구소인 ITRI(Industrial Technologies Research Institute, 공업기술연구원)에서 맡고 있고, 핵심 조직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위원회인 TC1은 MediaTek이 맡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ICT 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부품 산업은 우수, 디바이스 산업은 다소 우수, 인프라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은 미흡으로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내수 시장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하면(인구 2,400만 명, 면적 34,000km<sup>2</sup>, 인당 GDP 24,000\$)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국제 경제 분업 측면에서는 본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만 정부도 나름대로 ICT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다. WiMAX를 기반으로 Mobile Society를 구형하고자 했던 m-Taiwan Project를 비롯해서 4세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i-Taiwan Project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 활동의 중심에는 연구원 5,000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국책연구소인 ITRI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알다시피 WiMAX는 실패한 산업이 되어 버렸고, 후속의 산업정책도 특별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전통적인 foundry 산업장자인 TSMC를 제외하면 MediaTek 정도가 돋 보이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라기 보다는 MediaTek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만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성공한 TDx, CDMA 사례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ITRI에서 분사한

TSMC의 성공 사례를 부러워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에 대만의 정책에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과소 평가했거나 생태계 전체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한국의 ICT 산업과 연계해서 분석해 보면, 한국과 대만의 ICT 산업은 경쟁이 심한 분야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 더군다나 양국은 국민성도 비슷하고 근대사의 아픈 경험도 유사하므로 정서적 공감대도 높다.

글로벌 ICT 산업체계에서 대만은 반도체, 부품, 제조역량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디바이스, 인프라, 콘텐츠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이 연구개발, 표준화, 산업혁신 등에서 협력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유사한 국민성, 근현대의 역사적 경험 등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양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만들어지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